■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61-386.
http://doi.org/10.17948/kcs.2023..99.361

이돈화의 동학사상 연구*
—‘인내천(人乃天)’과 ‘지기론(至氣論)’을 중심으로—

정혜정(丁惠貞)**

목 차

1. 서론
2. ‘한울’의 개념과 ‘인내천(人乃天)’의 규명
3. 동학의 ‘한울님’ 체험과 인내천(人乃天)의 신관(神觀)
4.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진화론과 ‘지기실재론’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이돈화의 동학사상을 ‘인내천(人乃天)’과 ‘지기론(至氣論)’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돈화는 인내천의 한울을 ‘대우주의 양적 한울’과, ‘무위이화(자율적 창조)의 질적 한울’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사람성 무궁’과 ‘사람성 자연’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운이 말한 “무궁한 이 울, 무궁한 나”, 그리고 해월이 말한 “대우주, 대생명, 대정신”의 한울님 개념을 계승한 것이었다. ‘사람성 무궁’은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우주만유의 총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사람성 자연’은 사람의 본성이 곧 한울의 영능(靈能)이라는 자각 위에 인간(한울) 스스로 무위이화를 전개하는 개벽의 주체임을 의미했다. 한편 이돈화는 수운의 한울님 체험을 ‘천사문답(天師問答)의 정신현상’으로 규정하고, 3단계의 변화(상제천→범재천→인내천)로 그 과정을 인식하여 동학의 신관을 ‘인내천 신(神)’, 즉 ‘범신론적 일신론’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서구 진화론과 근대 실재론을 활용하여 ‘무위이화의 진화론’과 ‘지기실재론’을 전개시키는 동시에 서구 사유와 차별화시켜 나갔다. 이돈화의 동학사상은 ‘한울철학의 심화’이고 동학의 불교적 체용론을 살려 나간 ‘지기론의 체계화’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이돈화, 동학사상, 한울, 인내천, 지기론, 무위이화.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7800).

** 동국대(경주) 갈등치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서론

야뢰 이돈화(李敦化: 1884-?)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동학(천도교) 이론가이다. 1903년 동학에 입도하여 1904년 동학 민회단체인 진보회 평의원으로 활동했고, 1920년 일제하의 대표적 잡지인 『개벽』을 창간하여 폐간(1926)될 때까지 주간·편집인을 맡았다. 또한 조선농민사 창립(1925)에 참여하여 1932년까지 조선농민사 이사로 활동했다. 1911년 1월 『천도교회월보』에서부터 언론활동을 시작했고, 1920년대 천도교 신문화운동을 주도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인내천요의』(1924), 『수운심법강의』(1926), 『신인철학』(1931), 『천도교창건사』(1933), 『새말』(1934) 등을 꼽을 수 있다.[1)]

이돈화는 동학이 지닌 고유사상을 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고자 노력하였고, 서구철학을 수용하여 이를 동학사상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동학을 기초로 다양한 사상을 소화해 나갈 것을 주장하여 '대식주의(大食主義)'를 표방했고, 기존의 종교도덕이나 현대사상을 포용·배제하면서 "후천 5만년의 대도대덕을 창건하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동학정신이라 하였다. 흔히 이돈화의 동학사상이 서구철학에 경도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인내천요의』와 『신인철학』에 한정시켜 그의 사상을 평가하고, 서구 용어의 개념에 이입되어 그 중심에 깔려 있는 동학을 읽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2)]

이돈화는 서구 진화론을 수용하면서도 '무위이화의 진화'를 말했고, 서구 근대의 '현상즉실재론'을 수용하면서도 동학을 '지기실재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

1) 이돈화의 초기작품인 『인내천요의』와 『수운심법강의』, 그리고 1930년대 초반 『신인철학』과 『새말』은 각각 쌍을 이루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띤다. 특히 『신인철학』과 『새말』은 서로를 보완하는 지정의(知情意)의 완성 관계에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신인철학』은 이돈화가 1910년대부터 『천도교회월보』와 『개벽』에 발표한 글들을 수록하고 보완하여 새롭게 내용을 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인철학』이 현대적인 담론으로 우주관, 인생관, 사회관, 개벽사상, 도덕관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새말』은 전통적인 담론으로서 운수문(運數門), 감응문(感應門), 화복문(禍福門), 수련문(修練門), 성도문(成道門)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인내천요의』와 『신인철학』이 서구 담론을 활용하여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표현한 것이라면 『수운심법강의』와 『새말』은 동학 경전에 충실하고자 한 의도가 짙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 말기 이돈화가 친일로 변절하기 이전의 작품에 한정시켜 그의 동학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는 한결같이 이돈화의 동학사상을 서구철학에 근거한 근대화로 보고 있고, 베르그송의 생명진화론이나 이노우에 데쓰지로가 말한 실재론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서구의 사유 틀을 활용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서구 사유와는 다른 맥락으로 전개되었음을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는 이돈화의 ‘인내천(人乃天)’개념과 ‘지기론(至氣論)’을 중심으로 서구 신관과 진화론, 그리고 근대 실재론이 어떻게 동학사상과 맞물려 동학을 설명하고 서구사상과 차별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돈화가 제시한 ‘한울’의 명칭과 개념, ‘양적 한울’과 ‘질적 한울’의 구분, ‘범신론적 일신론’의 신관(神觀), ‘사람성 무궁’과 ‘사람성 자연’, ‘지기실재론’의 자율적 창조와 ‘무위이화의 진화론’ 등을 분석하여 이돈화의 동학사상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수운의 동학사상이 20세기 초반에 와서 어떠한 맥락으로 재해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2. ‘한울’의 개념과 ‘인내천(人乃天)’의 규명

1) ‘한울’의 명칭과 개념

동학은 시천주(侍天主), 인내천(人乃天)의 진리를 표방하고 있다. ‘사람이 곧 한울(人乃天)’[3]이라 할 때, ‘한울(天)’은 이돈화가 만든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고유어이다.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의 삼신(三神)을 하나로 묶어 ‘한님’이라 불렀고, 이후에는 ‘한울’, ‘한얼’로 변하였다.”[4] 또한 ‘한’의 ‘ㄴ’이 아래로 내려앉아 ‘하날’, ‘하눌’ 또는 ‘하늘’로 변전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ㆍ’음이 ‘ㅏ’, ‘ㅜ’, ‘ㅡ’ 등의 음질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운이 처음 표기했던 ‘천(天)’의 한글 표기는 ᄒᆞ늘이었지만 1910년대 초기 『천도교회월보』를 살펴보면 하날, 한을, 한울이 모두 혼용된 바 있고, 점차 한울, 또는 한울님으로 표기되었다.[5] 한울님은 전통적으로 하날, 하늘과 함께 신적 대상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지만, 이돈화가 말하는 한울의 ‘한’은 크다는 의미

3) 인간과 만물에 우주의 본체인 한울님이 모셔져 있고, 이 ‘모심’을 자각하고 한울님과 합한 영성적 사람을 인내천(人乃天), 혹은 ‘천인(天人)’이라 부른다.

4) 김경탁, 「하느님 관념 발달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문화사대계』 6, 1971, 117-118면.

5) ‘천(天)’의 한글 명칭변화와 관련된 기존연구로는 박소정, 「동학, 한국어로 시도된 최초의 철학(5)」, 『개벽신문』 55, 2016.6.; 남연호, 「동학의 천주를 하늘님으로 표기하자는 주장」, 『동학학보』 59, 2021; 조성환・이우진, 「ᄒᆞ늘님에서 한울님으로: 동학・천도교에서의 천명(天名)의 변화」, 『대동철학』 100, 대동철학회, 2022 등이 있다.

이며 '울'은 무한한 우주 전체의 시공을 포함하면서도 시공을 초월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한울이라는 명칭은 동학 나름의 고유성을 지닌다.[6]

이돈화는 '한울' 개념을 수운이 말한 「무궁한 그 이치를 무궁히 살펴내면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7]에서 "무궁한 이 울"과 "무궁한 나"에 근거하여 이를 '양적 한울'과 '질적 한울'로 구체화시켜 나갔다. 양적 의미의 한울이란 무궁한 시공간의 총합으로서 '우주전체'로 의미 지은 객관적 한울을 말하고, 질적 한울이란 "무궁한 나(無窮我)", "큰 나(大我)", "사회적 · 우주적 우리"를 뜻하는 주관적 한울을 말한다.[8] 그러므로 한울은 주객일치로서 만물을 생성하고 만물의 중심에서 만물에게 활동의 힘을 주며 그리하여 만물을 부분적 현실 위에서 진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무궁자'로 인식되었다. 또한 그는 해월 최시형이 말한 "대우주, 대생명, 대정신"[9]의 한울 개념에 근거하여 한울님을 만물의 근원, 만물의 영능(靈能), 만물의 생명으로서 만물의 중심에서 만물을 진화시키는 생명력(생활력)으로 묘사하였다.

> 한울님은 하나님이나 귀신과 같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다. 그는 대우주 대생명으로 만물의 근원이 되며 만물의 영능이 되며 만물의 생명이 되어 만물의 중심에서 만물에게 생활하는 힘을 주며 그리하여 만물을 현실의 위에서 진화시키기 위하여 부분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울님은 무궁인 동시에 진화이며 전체인 동시에 현실이다.[10]

이돈화가 말하는 한울은 '자존'이고 '만물의 영능'이며 자율적 창조를 이루는 조화자(造化者)이다. 조화자란 곧 '무위이화(無爲而化)'로서 그 실재를 한정할 수 없는 무궁이다. 이는 서양의 神처럼 초월적이고 단일한 창조자의 권능을

---

6) 김용옥은 한울(한울님)이라는 명칭은 파기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한울님은 ᄒᆞ늘님의 사투리 발음체계와 거의 동일하게 받아들여졌고, 또한 '한 울타리'라는 의미를 지녀 한울을 한정 짓는다는 것이다(도올 김용옥, 『동경대전』 2, 통나무, 2021, 27면). 그러나 이돈화가 말하는 한울의 개념은 수운이 말했던 "무궁한 울, 무궁한 나"를 총칭하여 사용한 용어라 할 수 있다.

7) 『용담유사』, 「흥비가」. 원문은 "무궁한 그 이치를 불연기연 살펴내면 (…) 무궁히 살펴내어 무궁히 알았으면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이다.

8) 이돈화, 『신인철학』, 천도교중앙종리원, 1931, 4면.

9) 『해월신사법설』, 「영부주문」 (천도교경전: 292).

10) 이돈화, 『새말』, 천도교중앙종리원, 1926, 241면.

조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일적 한울님(全一天)의 자율적 생장법칙”을 조화라 말한 것이다.[11] 그리고 그 조화로써 우주 자연의 현상은 무기물계-생물계-동물계-사람성의 생명진화로 표현되었고, 인간이라는 생명의 배후에는 우주의 생성과정이 이어져 있으며 대우주의 의식(정신)은 무궁 이전에서부터 점차 고도의 발달을 이루어 마침내 우리 사람의 의식이 되었다고 본다. 인간은 우주생성의 결과물이며 우주 전체의 생명이 ‘나’에게 와있는 점에서 우주전체의 생명은 곧 ‘큰 나’이다. 이와 같은 이돈화의 한울 개념에는 분명 해월이 말한 “대우주, 대생명, 대정신”이라는 의미가 함께 녹아 있음을 볼 수 있다.

> 의식은 영원 무궁 이전에서부터 점차 고도의 발달을 이루어 마침내 우리 사람의 의식이 된 것이 아닐까 보냐.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의 의식은 필경 대우주의 대의식을 그대로 품부한 것이라 할 것은 이론상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12]

또한 이돈화는 불교 화엄사상을 빌려와 한울님과 만물을 본체와 현상의 관계로 개념지었다. 수운이 “사람과 천지만물이 모두 한울님을 모셨다”고 하였고, 해월이 “만물・만사가 모두 한울(物物天 事事天)”이라 한 것은 곧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관계를 말한 것이다.[13] 여기서 ‘一’은 다수 중의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다수를 전부 포용하고 있는 전체로서의 ‘一’이다. 이돈화는 한울이라는 본체가 현상계에 나타난 그대로를 가리켜 ‘일즉다 다즉일’[14]이라 하였고, 한울과 만물의 관계를 융섭일치의 관계로 보았으며 이를 ‘인내천’이라 일컬었다.[15]

---

11) 백세명, 『동학경전해의』, 한국사상연구회, 1963, 15면.
12) 이돈화, 「吾人의 新死生觀, 意識과 死生=生命과 死生=靈魂과 死生」, 『개벽』 20, 1922.2., 20-21면.
13) 이돈화, 『신인철학』, 앞의 책, 6면.
14) 화엄에서 사사무애(事事無碍)는 이사무애(理事無礙)를 전제하는 것이지만 양자의 개념은 구분된다. 이사무애는 흔히 바다와 파도에 비유되고, 사사무애는 하나의 구슬이 전체를 중중무진 비추는 인드라망 구슬에 비유된다. ‘일즉다 다즉일’ 역시 사사무애(事事無碍: 현상과 현상의 상즉・상입)를 표현한 것인데 이돈화는 ‘본체 즉 현상’, ‘현상 즉 본체’를 설명하는 이사무애(理事無礙)의 맥락도 함께 포함시켜 ‘일(一)’과 ‘다(多)’를 말했다.
15) 이돈화는 수운이 『동경대전』, 「포덕문」에서 “무릇 인류가 생기기 이전인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서로 갈아듦과 사시의 성하고 쇠함”이 모두 “한울님 조화의 자취”라 한 것도 한울 본체가 현상계로 드러난 것을 뜻하는 것이라 보았다. 그는 한울을 대우주, 대생명, 대정신에 근거하여 양적 한울과 질적 한울, 객관과 주관, 현상과 본체, 多와 一의 “융섭”으로 한울의 개념을 전개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2) 인내천의 '사람성 무궁'

수운이 말한 시천(侍天)이란 '안으로 한울의 신령함이 있고, 밖으로 생명력이 작용(內有神靈 外有氣化)'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무궁한 울, 무궁한 나'라고 하였다. 이돈화는 이것이 곧 인내천(人乃天)을 드러낸 것으로서 사람이 한울님과 '신인일체(神人一體)'일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와 일체'임을 표현한 것이라 하였다. 신인일체가 '질적 한울'로 설명되었다면 우주 전일체는 '양적 한울'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는 '사람성 무궁'과 '사람성 자연'으로 이어졌다. 사람성은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천지만물의 총체를 포괄함'(사람성 무궁)과 동시에 '보편성의 내적 연속'(사람성 자연)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사람성이란 '천지만물의 무궁자인 한울님이 사람성으로 발현한 것'을 뜻한다.

> 사람성 중에 직각적인 무궁의 관념이 움직이게 되고 그 무궁의 관념은 지기적 생명의 자기관조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사람성이 무궁한 까닭이다. 즉 무궁자인 한울님이 사람성으로 발동하는 것이다.[16]

한울님은 만물을 생성하여 만물 중에서 활동하며 만물의 무궁한 진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이는 마치 사람의 내재적 영성이 육체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천지만유의 본성이 내적으로 통하여 있다는 점에서 천지만유는 "동일체의 개체화"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한울님의 자율적 창조(진화)로부터 천지만유의 생성을 거쳐 최령자에 이른 우주적 존재이다. 마치 열매의 배후에는 꽃이 있고 꽃의 배후에는 가지가 있고 가지의 배후에는 줄기가 있으며 줄기의 배후에는 뿌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천지만유의 무궁한 진화과정을 밟아온 것이다. 사람성 무궁은 "천지만유를 한 계통위에 서게 한 것"이고 "대우주의 진화법칙(進化律)을 사람 자기성 가운데 포용하여 무궁한 대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서 제시되었다.

> 우주의 본체는 곧 사람의 본체인데 사람성은 근본에서 불생불멸이며 무선무악한

16) 이돈화, 『신인철학』, 앞의 책, 58면.

> 본질로 단지 대우주의 진화률을 사람 자기성 가운데 포용하여가지고 무궁무궁의 대목적을 매진하는 것이다.[17]

우주의 본체는 곧 사람의 본체이기에 신인일체, 우주적 전일체가 된다. 이는 그 본질이 불생불멸(不生不滅), 무선무악(無善無惡)의 무궁성이기 때문이다.[18] 한울님의 무궁성은 천지만유로 표현되었고, 그 최종 결정체는 사람성 무궁으로 나타났다. 사람성 무궁은 그 자체에 천지만유의 과정을 포용해 있고[19],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신성(神性)을 포함하여 있다. 무시무종이란 천지만물이 무궁 이전부터 끝없이 흘러와 무궁히 전개될 것을 지칭함이다. 이는 천지만물이 어떤 시대에 돌연히 창조되었다거나 인간이 하등동물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성 중에 무기물성, 식물성, 동물성이 모두 아우러져 있고, 무한한 우주의 시공간을 통일한 개념이며 무시무종, 불생불멸의 절대성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열매는 식물의 피조물이 아니고 파도 역시 바닷물의 피조물이 아님과 같다. 즉, 파도가 바닷물 자체의 자율적 표현임과 같이 천지만유는 그 자체에서 한울님의 자율적 창조(진화운동)를 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성 무궁’에는 우주만유가 이어져 있고, ‘창조성’과 ‘진화성’의 의미가 내재해 있다. 창조함으로써 진화가 있고, 진화함으로써 창조가 생겨나는 것이다.[20]

만물은 한울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한울의 자율적 창조성에 말미암는 한울 스스로의 표현이다. 만물 가운데 인간은 가장 신령한 최고의 표현으로서 ‘한울님은 사람의 의지를 통하여 일하고 사람은 한울님의 심령 자체에서 활동함으로써 한울님의 공로와 사람의 일이 합일 성장’[21]하게 된다. 이를 수운은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吾心卽汝心)”이라 표현하면서 영부(靈符)로 형상화하였다.[22]

---

17) 이돈화, 「사람성의 무궁을 논하노라」, 『천도교회월보』 128, 1921.4, 6면.
18) ‘불생불멸’, ‘무선무악’은 불교에서 본체 개념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의암은 「무체법경」에서 이 말을 썼고, 수운은 ‘불천불역(不遷不易)’, ‘불택선악(不擇善惡)’이라는 표현을 썼다. 불생불멸은 만물을 생성하고 향상시키는 ‘무궁한 작용’을 낳는다. 불교로 표현하면 ‘공성(空性)’이고 동학으로 표현하면 ‘무궁성’이다. 불생불멸의 공성이자 무궁성이기에 변화가 가능하고 모든 것을 품어 안아 일체가 될 수 있다. 김지하는 동학의 무궁성을 “활동하는 無”라 지칭하였다.
19)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천도교중앙종리원, 1926, 118면.
20) 이돈화, 『인내천요의』, 천도교중앙종리원, 1924, 138-139면.
21)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앞의 책, 25면.

이는 본래 한울님의 마음과 인간의 근본적 본성(심령)이 온전히 부합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영부는 '대우주·대생명의 원천'을 상징화한 것이고, '생혼(生魂)의 약동'과 '창조심의 무궁성'을 곡선형으로 그려낸 것이다. 영부로 상징되는 무궁한 한울님은 만물 생성·변화의 주재자이고 천지인과 동체이며 곧 사람 무궁성이다. 이돈화는 이를 '인내천(人乃天)'이라 불렀다. 사람성 무궁은 그 실질에서 "영겁의 全 시간을 통일한 대우주"이고, '만유의 보편적 본체'이자 '천지만유를 全的으로 포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마치 '파도 밑에 큰 바다가 있는 것'과 같고, '잎 하나의 생명에 나무 전체의 생명이 통하여 있는 것'과 같으며[23] 알알의 염주가 '오직 하나의 줄로 염주알 전체를 꿰고 있는 것'과 같다.[24]

3)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사람성 자연'

수운은 곳곳에서 "우리의 도는 무위이화"라 했고, "입도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군자되니 무위이화 아닐런가" 하였다. 이돈화는 이 무위이화를 일컬어 '사람성 자연'이라 명명했다. 사람성 자연은 사람성 무궁과 연동하여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주의'(主義)이고[25], '사람성을 자유롭게 신장케 하는 본능'[26]이다. 여기서 '본능'이라는 말은 서구의 생물학적 개념이나 심리학적인 'id'와는 뜻이 다르다. 서구학문에서 본능은 무의식적 차원이나 저급한 본성으로 간주된다. 이는 인간 자신을 협소하게 여겨 자기 스스로의 본능을 폄하하는 맥락이 강하다.[27] 반면 이돈화가 말하는 사람성의 본능은 곧 '본래의 능력', '한울의 영능(靈能)'을 뜻한다. 한울의 영능은 '영기영심(靈氣靈心)'이고, 이는

22) 궁을기는 1905년 동학이 천도교로 개칭되기 전 의암(손병희)의 지시로 권동진, 오세창, 양한묵이 모여 만들었다. 이 역시 '오심즉여심'의 영부를 이미지화한 것이다.
23) 이돈화, 『새말』, 앞의 책, 93면.
24) 같은 책, 158면.
25)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앞의 책, 79면. (이돈화가 말하는 주의란 흔히 말하는 '-ism'이 아니라 우주대생명으로부터 일어나는 '정신적 힘'을 지칭한다. 주의와 생명은 결코 둘이 아니며 주의를 버리고 생명을 아끼는 것은 주의가 아니다. 그는 수운의 죽음도 주의와 생명이 일치된 것에서 온 것이라 말했다.)
26)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앞의 책, 125면.
27) 이돈화는 이를 지적하여 '춘치자명(春雉自鳴)'이라 하였다. 춘치자명이란 봄철에 꿩이 스스로 운다는 뜻으로 남이 뭐라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마치 천강(千江)의 달처럼 천지만물의 본능으로 화(化)하고, 사람의 혼이 되며 사람의 정신으로 화하는 것이다.

> 한울의 본능인 영기영심이 천지만물의 본능으로 화한 것이다. 마치 하늘의 달이 천강의 물에 비취는 것과 같이 한울님의 영기는 일만 물건의 본능으로 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의 혼이 되며 사람의 정신으로 화한 것이다.[28]

또한 사람성 본능은 지기의 작용인 동시에 지기의 본체로서 “대우주의 대의식”이자 “무궁의 의식”이다.[29] 대우주의 대생명은 무한한 연속률에 의지하여 하등단계로부터 진화되어 고등단계인 인간계의 생명으로 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기에 이돈화는 ‘이 대우주 대생명의 무한무궁한 능률’을 가리켜 ‘한울님의 영능(靈能)’이라 불렀던 것이다.[30] 한울님은 우주에 충만한 ‘지기생명력’이자 ‘영원한 혜명(慧明)’[31]이다.

우주의 역사는 서구 진화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질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의식으로 진화해 온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던 우주 대정신이 때가 되어서 물질로, 생명으로, 의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온 역사이다.[32] 그러므로 사람성 자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 우주의 대생명, 대정신이라는 대오각성[大覺悟]이다. 이는 한울님(神)과 사람, 만물과 사람을 별개로 분립시키지 않고, 전 우주 만물을 한 계통으로 보며 사람을 “우주라 하는 큰 수목의 최절정[最絶点]에 열린 과실”[33]로 보는 데서 확립된다.

원래 사람성 자연이란 말은 수운의 가르침에서 항상 말했던 ‘무위이화’와

---

28) 이돈화, 『새말』, 앞의 책, 40면.
29)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앞의 책, 43면.
30) 이돈화, 『새말』, 앞의 책, 222면.
31) 이돈화는 천지만물이 그 본성에서 혜명(慧明)을 가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혜명은 곧 ‘만사지(萬事知)’의 ‘知’로서 내유신령의 知를 이름이고 사람성의 혜명을 지칭하며 또한 사람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대로 생활하는 ‘진지(眞知)’를 의미한다(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앞의 책, 52-53면).
32) 개인과 우주는 내부와 외부가 정연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 통일을 질서있게 자아화 하는 것이 생명과 의식의 두 가지 활동이다. 인간의 의식과 생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요, 의식계는 우주에 충만한 정신적 실재이며 또한 개체생명으로 드러나 우주와 연맥・조섭(調攝)하는 무위이화의 힘을 가졌다.
33)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앞의 책, 125-126면.

‘자연’에서 생긴 말이다. 여기서 자연이란 객관대상으로서 ‘자연(nature)’이나 노자의 ‘무위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천의 인간격(人間格)’으로부터 순화되고 영화(靈化)되는 적극적 자연을 말함이고, 인간격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 진선미를 융화하여 드러냄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사회에 조화롭게 행해질 때, 그 극치를 이돈화는 ‘사람성 자연’이라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성 자연은 원시시대로부터 금일에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 각 시대마다 무궁히 발전・향상하여 조화와 균형을 지향해 왔다.[34] 이렇게 보았을 때, 천연계의 자연은 사람성 자연의 외적 소재가 되고 심리상 자연은 내적 소재가 되며 합리적 자연은 그 범주가 된다. 또한 필연적 자연은 사람성의 역사적 과정으로 점철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성 자연’이란 한울님의 영능을 드러내고, 무위이화로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개벽의 주체라 할 것이다. 이돈화는 이러한 ‘사람성 자연’이 개벽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적 원리를 네 가지 법칙으로 제시하였다.

제1법칙은 ‘세 가지의 유기적 합성 생장체(개성능률+사회기능+자연의 세력)’가 인류의 집합적 의식체제를 통하여 유동해가는 것을 말한다. 사람성 본능의 요구와 외부 자연의 에너지의 조화에 의하여 사람성 능률이 생기고 사람성 능률의 총관계가 사회기능을 낳아 다시 사회기능과 각 사람성 능률이 합치되어 사람성 자연이 된다. 여기서 사람성의 능률이란 물질과 생산관계, 그리고 역사적 의식관계의 합치를 말한다. [① 개성본능+자연세력=사람성 능률 → ② 사람성 능률+사람성 능률의 총화=사회기능 → ③ 사회기능+사람성 능률=사람성 자연][35]

제2법칙은 사람성 자연이 필연적 자연의 능동성으로 각각의 장구한 역사적 단계를 형성하고 각 단계에서 특수한 특징을 표현해 나감이다.[36] 사람은 우주본체의 능동성과 같이 필연적 능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 능동성은 일정한 단계를 밟아 자라는데, 이는 곧 사람성 자연의 진화과정을 표시한다. 예컨대

---

34) 이돈화, 『신인철학』, 앞의 책, 149-150면.
35) 같은 책, 153면. (모든 개체 생명에는 꿀벌이 꿀을 만들고, 거미가 거미줄을 짜는 것처럼 각기 특수한 본능이 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사회에 축적된 정보 시스템 기능을 활용하고, 외적 사회기능을 받아들여 융화시켜며 사람성 능률과 합치케 하므로 사회기능은 한층 더 진화하게 된다.)
36) 같은 책, 159면.

사람성 자연의 진화는 씨족시대-부락시대-민족시대-국가시대, 노예시대-농노시대-자본주의시대, 다신시대-일신시대 등 각 시대마다 사상, 도덕, 예술의 특징을 표현하면서 금일과 같은 현대생활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법칙은 사람성 자연이 각 시대마다 합리성을 지니지만 다른 시대에 이르면 불합리로 변하면서 변증법적 방법으로 자라난다는 점이다. 한 시대의 합리적 자연은 어떤 시대에는 불합리가 된다. 사람성 자연은 각 시대마다의 특징을 내포하는 합리적 자연이지만[37] 사람성 자연이 시대를 따라 자라고, 시대와 사람성 자연이 아울러 커지는 까닭에 불합리로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 시대의 사람성 자연을 구하는 방식은 [어떤 시대의 사람성 능률+어떤 시대 사회기능 균형=어떤 시대 사람성 자연]이 된다. 또한 새 시대를 창조할 사람성 자연의 방식은 [어떤 시대의 사람성 능률+어떤 시대 사회기능 모순+신시대 창조의 정신=신시대 사람성 자연]이 된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것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성 자연중에서 그 결함을 잡아내고, 신시대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생활방식의 도안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한다.[38]

끝으로 제4법칙은 어떤 한 시대에서 사람성 자연의 표준은 변증법적 고찰과 비판 위에 세워짐을 말한다.[39] 각 시대의 사람성 자연의 표준을 세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람성 자연의 변증법적 고찰이다. 유년의 원인으로 소년의 결과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적 과정에서 지나간 사람성 자연이 지어놓은 원인과 결과를 통해 이로써 표준을 잡을 수 있다. 둘째는 ‘비판(불평)의 철리(哲理)’이다. 어떤 시대에서 새 시대의 사람성 자연의 표준을 구하고자 하면 평화 가운데서가 아닌 비판(불평) 가운데서 이를 파악해야 한다. 대개 낡은 시대와 새 시대가 변환하는 때에 있어 인간성의 분기점은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

37) 앞의 책, 160면.
38) 이돈화가 말한 시대의 합리성과 불합리성의 변증법적 성장은 김형준이 말한 ‘변증법적 생활태도론’과 맞물린다. 또한 이돈화가 말한 새 시대를 창조할 ‘사람성 자연’은 김형준이 말한 ‘개벽적 생활태도’와 연계된다(정혜정, 「김형준의 동학사회주의와 네오휴머니즘」, 『민족문화연구』 9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533-534면).
39) 앞의 책, 162면.

심리를 가진 자, 둘째는 일상생활의 핍박과 전래의 인습에 함몰되어 새 눈을 뜰만 한 여유와 경우를 가지지 못하는 몰각자, 셋째는 시대를 불평하는 소수자이다. 이 소수자의 비판은 그 시대를 건질 만한 大覺에서 나온다.

요컨대 사람성 자연은 개성, 자연, 사회의 3대 특징이 합성된 유기적 의식(意識)으로서 필연적·합리적 변천에 따라 현실 삶의 세계에서 시대상을 건축하는 무위이화의 창조성이다. 무위이화의 창조적 실현은 사회발전을 이루는 제도적 개혁을 아우른다.[40] '사람성 자연'의 자율적 창조력으로 개인과 사회, 자유와 평등을 향상시키고, 사회제도의 개조와 완성을 기하는 데서 '사람성 자연'은 드러난다.

3. 동학의 '한울님' 체험과 인내천(人乃天)의 신관(神觀)

1) '한울님' 체험의 3단계

수운은 전국을 주류하던 구도 끝에 1860년 4월 5일(37세) 한울님을 체험했다. 수운의 한울님 체험과 기록은 약 1년 반 동안의 일인데, 이돈화는 수운의 한울체험을 '천사문답(天師問答)의 정신현상'[41]이라 명명했다.[42] 그는 수운이 상제의 말을 듣는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누었다.[43] 수운이 처음에 천어를 공중으로부터 들을 때에는 ① '상제의 말(仙語)'을 들었다 하였고(「포덕문」) ② 다음에는 강화로써 들었다 하였다.(「논학문」) 또한 ③ 모든 말마다 '강화'가 아님이 없다 하였다. 이 세 번째 단계는 해월이 "인어(人語)가 곧 천어(天語)"이니 "공리와 천심에서 나온 말이면 천어 아님이 없다"[44]고 한 것과 상통한다. 천어와

---

40) 이돈화, 앞의 책, 127-128면.

41)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앞의 책, 14-16면.

42) 동학경전 가운데 한울님 체험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네 곳을 꼽을 수 있다. ①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홀연히 귀에 들리므로 놀라 물은즉 두려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 포덕천하 하리라"(「포덕문」) ② "한울님 하신말씀 (…) 나도성공 너도득의 너의집안 큰 운수라"(「용담가」) ③ "한울님 하신말씀 너도역시 사람이라 (…) 지상신선 네 아닌가."(「교훈가」) ④ "몸이 몹시 떨리면서 밖으로 접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되 (…)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논학문」)

43) 이돈화, 『새말』, 앞의 책, 47면.

44) 해월은 말하기를 "내가 항상 말할 때에 천어를 이야기 하였으나 천어가 어찌 따로 있으리요. 인어(人語)가 곧 천어(天語)이며 새소리도 역시 시천주의 소리"라 하였다. "천어는 대개 강화로 나오는 말을 이름인데 강화란 사람의 사욕과 감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요 공리(公理)와 천심에서 나오는

인어가 구별이 없이 말마다 천어가 되는 때는 한울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어지고, 사람이 한울이요 한울이 곧 사람인 경지에 이른 단계이다. 이돈화는 이 마지막 단계를 바로 ‘인내천’이라 불렀다.[45] 이렇게 볼 때, 한울님 체험은 곧 ‘천어’를 듣는 단계적 발전으로서 인내천의 체득과정이라 할 수 있다.

(1) (2) (3)
천어를 공중으로부터 듣는 단계 → 강화로 듣는 단계 → 말마다 강화가 되고 천어가 되는 단계

수운의 한울님 체험은 처음에 인격적 상제를 용인하였으나 다음 단계에서는 인격적 상제가 없음을 각파(覺破)한 것이었고, 마침내 한울님이 사람성 무궁을 통하여 엄연히 존재함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었다. 수운이 「포덕문」에서 ‘선어(仙語)가 밖으로부터 있어 홀연히 들렸다(有何仙語忽入耳中)’한 것은 각도(覺道) 초기에 한울(神)과 사람(人)의 대립을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논학문」에서 ‘내유강화지교’(內有降話之敎)와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을 말한 것은 각도(覺道)의 중간 단계로서 이는 인격적 상제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수운이 「도덕가」에서 ‘천상의 상제를 말함은 허무지설’이라 말하고, ‘사람의 수족동정 말하고 웃는 것은 귀신이며 조화’라 한 것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논학문」에서 ‘말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솟아 나왔다는 것’(內有降話之敎)은 “인격적 상제를 부인하고 인내천 神을 표명한 것”[46]이라 할 수 있다. 신령한 가르침이 심령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러나와 입을 통하여 말이 된 것인즉 이는 “상제를 내재적으로 인정”한 것이지 결코 외재적 상제를 말함이 아니었다.

이돈화는 수운의 천사문답을 근본적인 ‘신인일체(神人一體)’하에 수운 스스로가 무극대도의 원리를 ‘자문자답’한 것으로 보았다. 이 자문자답은 현상의식이 ‘현상의식’과 대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인’(神人) 의식과 문답한 것이다.[47] 따라서

것을 가리킴”이다. “말이 이치에 합하고 도에 통하면 어느 것이 천어 아님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해월신사법설』, 「천어」, (천도교경전: 359-360)].

45) 이돈화, 『새말』, 앞의 책, 48면.

46)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앞의 책, 19면.

47) 앞의 책, 19-20면.

수운의 한울님 체험은 한울님이 인간(심령)을 떠나 존재하지 않고, 인간(심령) 역시 한울님(상제)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 "인내천 신(神)"을 드러낸 것으로서 「상제천→범재천→인내천」으로의 단계적 변화로 인식된 것이라 할 수 있다.[48] 이돈화는 이 '인내천의 神'을 '신유신론(新有神論)'이라 불렀다.

2) 인내천의 신관(神觀)과 '범신론적 일신론'

수운은 일찍이 서학을 평가할 때 "저들은 단지 자기 몸을 위하여 천주에게 의뢰할 뿐, 몸에 기화의 神을 기르지 못한다."[49] 하였다. 서학은 신과 사람을 대립시키고, 神의 영능을 '자체자용'(自體自用)하지 못하기에 그 의뢰적 신앙은 필경 인간 따로(人自人), 신 따로(神自神) 갈라져서 양자가 분립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神의 활동과 사람의 의지가 배치되어 아무 공로가 없게 된다.

이돈화는 '신과 사람의 대립을 철폐'하고, '신과 만물의 대립을 없애며' 신과 만물을 '일체양능'(一體兩能)으로 보아[50] 범신론과 유신론을 결합시켰다. 즉 한울님이란 인격신적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인격적인 자연 생명력도 아니라고 그는 말하면서 "한울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다."[51]고 하였다.[52]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돈화는 한울을 '양적 한울'과 '질적 한울'로 나누어 인식한 바 있다. 양적 한울은 대우주를 말하고 무한한 시공간을 관통하는 우주 전체를 가리킨다. 또한 질적 한울은 무위이화와 자율적 창조로서 시공을 관통하는 무궁아를 말하며 지기(至氣)생명의 '자기관조'로 드러나는 의식의 주체적 차원을 말한다. 이 모두는 인간성에서 신(神)의 원천을 찾는 것으로서 양적 한울은 '범신론적 차원'에서 설명되고 질적 한울은 '일신론적 차원'으로 설명되었다.

기존연구는 이돈화의 신인철학을 '사람중심의 철학'으로서 "인본주의 해석이 강화되면서 신의 초월성이 약화되고, 동학 초기의 영성과 종교성이 약화"[53]된

48) 앞의 책, 21면.
49) 『동경대전』, 「논학문」, (천도교경전: 31).
50) 앞의 책, 24면.
51) 이돈화, 『새말』, 앞의 책, 241면.
52) 김용옥은 동학의 한울님을 초월적 인격신이 아닌 "천지자연 속에 내재하는 생명력을 님화한 것"이라 보았다(도올 김용옥, 『동경대전』 2, 앞의 책, 139면). 이 역시 이돈화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것으로 평가하거나 자연과학과 베르그송의 생철학에 이론적 토대를 둔 “천도교 근대화”, 혹은 “범신관”으로 규정하였다.[54] 그러나 이돈화가 ‘인간본위의 사상으로서 인내천’을 말한 것은 자본본위에 대한 저항적 의미가 강했다.[55] 여기서 인간본위란 인간격(우주격) 본위를 제시한 것이었다.[56] 인내천 생활은 곧 인간격 본위의 생활을 이름이고, 인간격 본위의 생활은 우주와 인간, 세계와 인간을 내적으로 결합하는 생활을 말한다. 이는 “우주격이 인간에 의하여 표현된 것을 이름”[57]이고, 인간격으로서 세계를 건설하고 ‘우주생활’을 향상케 하려는 생활이다. 따라서 이돈화가 말하는 인간본위는 신본위의 반대개념[58]이 아니라 ‘인내천 신(神)’의 한울본위와 맞물리는 개념이다. 인내천 신(神)은 범신론(만유신관)과 유일신을 포함한 것으로서 이돈화는 이를 “범신론적 일신론”[59]이라 불렀다.

> 천주는 곧 神의 의미이다. 神은 오랜 진화를 거쳐 다신관, 일신관, 범신관, 人乃天神의 구별이 있게 된 것인데 수운이 주창한 시천주는 인내천신을 말한 것이다. 원래 신은 다종다양이 아니다. 억겁 우주를 통하여 유일 보편적 신이 존재할 뿐이다.[60]

인내천 신은 유일신을 인정하지만 인격신을 말함이 아니요, 범신론처럼 천지만물을 모두 신의 표현으로 생각하나 다종다양이 아니며 신을 자각하는 것은

---

53) 김용휘, 「천도교 문화운동론과 서양철학 수용」, 『범한철학』, 2015, 83면.
54) 이철호, 「우주종교로서의 개벽사상」, 『한국학연구』38, 2015, 485-486, 494면; 허수, 『이돈화 연구』, 역사비평사, 2011, 59면.
55) 이돈화는 신본위(神本位)→ 영웅본위→ 경제본위주의로 옮겨가는 시대의 변천을 말하면서 경제본위가 곧 현대자본주의의 발생인 자본본위라 한다면 자신이 말하는 인간본위는 자본본위에 반하는 개념이라 하였다(이돈화, 「생명의 의식화와 의식의 인본화」, 『개벽』69, 1926.5, 8-9면).
56) 인간격이란 한울의 전 우주격이 인간에 의해 표현된 것으로서 무궁아, 대아를 의미한다(인간격에 대해서는 정혜정, 「이돈화의 동학사상과 시민사회: ‘우주생명론’과 ‘인간격(한울격)’의 권리를 중심으로」, 『횡단인문학』 10, 숙명인문학연구소, 2022, 312-314면, 참고).
57) 이돈화, 『신인철학』, 앞의 책, 53면.
58) 김용휘는 이돈화의 철학적 신론(神論)이 “베르그송과 스피노자, 그리고 포이에르 바하의 개념들에 힘입어 ‘한울’개념에 인격적 의지적 개념을 소거시키면서 정립된 것”(김용휘, 앞의 글, 75면)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돈화의 인내천神은 동학의 한울 개념을 근거로 유일신과 범신론을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9) 이돈화, 『신인철학』, 위의 책, 3면. (이돈화는 『인내천요의』(1924)에서도 동학의 신관을 ‘범신론적 일신론’이라 표명했다.)
60)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앞의 책, 48-49면.

인간이기에 인간을 최령자로 본다. 사람은 본래 '신의 창조적 능력의 자기표현'임과 동시에 신 역시 '사람의 창조적 이상의 자기표현'이다. 천지만물은 동일한 근저의 연쇄적 진화로서 '그 중추적 결실을 인간성의 표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인내천의 신관은 범신관과 다르다. 그러므로 이돈화는 인내천神을 '사람성 무궁의 중에서 천지우주의 범신을 포용케 한 神'이라 말했다.

> 인내천의 신은 일신관과 같이 우주의 유일신임을 인정함은 동일하나 신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음이 일신관과 다르며 범신관과 같이 천지만물이 모두 神의 표현으로 생각함은 동일하나 천지만물을 동일한 근저의 연쇄적 진화로 생각하여 인간성의 표현이 곧 신의 중추적 결실이라 생각한 점이 범신관과 다르니 인내천 신은 사람성 무궁의 중에서 천지우주의 범신을 포용케 한 신의 관념이다.[61]

4.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진화론과 '지기실재론'

1)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진화론과 과학적 진화론

수운은 일찍이 한울과 지기(至氣), 심(心) 등을 병칭해서 말했다. 이돈화는 수운이 말한 지기의 '무위이화(無爲而化)'를 '한울 진화론'으로 구체화시켜 나갔다. 수운 당시 진화라는 말은 없었고, 이는 분명 서구 진화론에 영향받은 것이지만 수운이 "한울님의 조화와 자취"를 말하고, "무위이화"를 말한 것에는 이미 변화와 향상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우주의 지기 대생명체가 계통적으로 유기적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이 무위이화이고, 한울은 이 무위이화의 법칙에 의하여 만유 현상으로 표현된 것이다.[62] 이돈화는 진화를 향상적 개념으로 인식했고, 이는 중국철학에도 있었던 것으로서 만유현상이 '간단으로부터 복잡'으로, '불완전으로부터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사유하였다.

> 지나 철학에 이른 말과 같이 무극이 태극을 낳고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는 논법으로 보면 우주의 태초는 단일한 단계였던 것이 2계단으로 진화하였고 2단계가 다시 4단계로 진화하여 점차 복잡에

61) 앞의 책.
62) 이돈화, 『신인철학』, 앞의 책, 47면.

복잡을 가하여 드디어 금일 만유현상이 있게 된 것이로다.[63]

무위이화란 우주를 “일대 지기적 생명체”, 혹은 “일대 기화적 생명체”로서 보아 한울의 절대적 본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존・자율의 ‘향상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64] 무위이화의 진화법칙은 단계적으로 물질의 과정에서 인력소(引力素), 동물의 과정에서 충동소(衝動素), 인간의 과정에서 의식소(意識素)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우주조직의 변화는 곧 지기 생명의 창조과정을 표시한 것이고, 인간의 단계에서 “지기생명의 자기관조”를 얻게 된 것은 곧 “인내천의 시초로서 한울 관념의 탄생”이요, “인간성에서 神의 원천(源泉)을 발견”[65]한 것이었다.

‘신의 원천’은 인간 밖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다. 한울의 전적 원리도 인간 밖이 아닌 인간 안에서, 즉 ‘우주의 과실(최령자)’인 ‘인간 의식 안에서’ 찾을 수 있다.[66] 한울 본체는 오직 인간의 자각적 인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한울은 인간에 와서야 비로소 한울이라 명명된 것이기에 동학은 이를 ‘물내천(物乃天)’이 아닌 ‘인내천(人乃天)’이라 부른다. 인간은 한울님 생명의 권화로 생긴 ‘변체적 한울님’[67]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이돈화가 진화를 말한다고 해서 이를 과학적 진화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과학적 진화론은 ‘물질적 인과율로서 형식적・조직적으로 보는 것’[68]이지만 한울의 진화설은 ‘지기생명력이 천지만유로 드러나는 무위이화의 전개’를 뜻한다. 즉 인내천의 철학에서 말하는 진화는 한울님의 생명이 진화 중에 표현되는 ‘생명적인 무위이화’이다. 이는 ‘진화 속에서 완전’을, ‘현상 속에서 본질을 동시적으로 내포하는 진화’이고, ‘본체인 한울님의 전성(轉成)’이며, ‘진화 속에서 본체(한울님의 생명)가 나타

63) 이돈화, 『인내천요의』, 앞의 책, 137-138면.
64) 이돈화, 『신인철학』, 앞의 책, 47-49면.
65) 같은 책, 45면.
66) 이를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는 단지 근본의 힘을 지지하는데 불과하고, 나무의 전적 작용은 가장 나중에 생긴 열매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 여기서 나무는 ‘한울’에, 열매는 ‘인간’에 상응한다.
67) 이돈화, 『새말』, 앞의 책, 206면.
68) 같은 책, 228면.

나는 것’이기에 천도는 완전한 전체인 동시에 불완전의 진화를 내포한다.

> 인간이 대우주의 대생명에서 진화되었다는 말을 과학적 진화론과 혼동하여 보면 안 된다. (…) 저들의 과학자들은 영겁으로 끊이지 않는 세계의 진화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은 진화의 중에 한울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인정치 아니하겠다. (…) 즉 한울님은 일면에서 진화함과 동시에 타일면에서 완전한 것이며 일면에서 표현임과 동시에 타 일면에서 본질인 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 한울님은 본체인 동시에 전성(轉成)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면에서 창조하며 진화함과 동시에 일면에서 무한을 실현하고 완전을 실감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 본체는 다시 진화와 아울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본체는 항상 전성(轉成)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 한울님의 도는 전체인 동시에 진화이었다. 이것은 크게 모순된 말과 같으나 이 큰 모순의 가운데는 조화가 있는 것이다. 전체란 말은 완전이란 말이며 진화란 말은 불완전을 의미한 것이다.[69]

무위이화의 진화는 ‘한울의 본체적 활력’, 즉 ‘지기 생명력’의 활동이 만유로 전개되어 나가는 진화이다. 지기생명력은 ‘일대(一大)생명적 활력’으로서 자존적 본체이며 자율적 창조의 자연이다. 무궁한 생명적 활력에 의해 만유가 진화되고 본체인 한울은 만물의 원인이 된다. 또한 한울 본체가 창조의 능산자라면 만물은 본체의 표현으로서 ‘소산적 창조의 자연’이다.[70] 이를 나무와 꽃으로 비유하면 나무는 꽃에 대한 능산적 본체이고 꽃은 나무 본체에 대한 소산적 창조의 자연이다. 창조의 능산자를 본체적 측면이라 하면, 소산적 창조의 자연은 현상적(작용적) 측면이 된다. 무위이화의 진화론은 이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한울의 본체가 현상(작용)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현상(작용)이 곧 본체의 진화(창조)임을 말하지만 과학적 진화론은 현상적(작용적)·소산적 측면만을 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69) 앞의 책, 228-230면.

70) 능산과 소산이라는 말은 스피노자에게서 가져온 것이다. 스피노자는 신(神)을 능산적 자연이라 했고, 신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소산적 자연이라 하였다(스티븐 내들러, 이혁주 역, 『에티카를 읽는다』, 그린비, 2013, 145-146면). 그러나 이돈화가 말하는 소산적 자연은 한울 자체의 드러남(표현)이고 ‘소산적 창조’로서 한울 자체의 성장을 이룬다는 점에서 스피노자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 과학적 진화설은 작용의 편만을 말하고 본체의 편은 말하지 않음에 반하여 수운주의 진화설은 본체론으로부터 작용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즉 과학은 증명의 학인만큼 외부에 나타난 조직의 해석으로부터 진화를 논하게 되고 수운주의는 작용 및 조직의 본원되는 한울의 본체적 계통으로부터 진화의 형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71]

과학적 진화설이 물질, 부분, 현상 등의 작용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라면, 수운주의 진화설은 본체로부터 작용 모두를 아우르는 진화설이다. 이돈화는 과학적 진화설이 작용의 편만을 말했다면, 수운주의 진화설은 본체적 계통으로부터 진화의 형식에 이르는 것이고, 본체론으로부터 작용론에, 작용론으로부터 본체론에 이르는 것임을 말했다.[72]

또한 무위이화의 진화는 부분과 전체의 통합적 관계를 명료히 한다. 대우주·대생명·대정신의 전적(全的) 한울이 개체성을 이루는 것은 마치 ‘건전지로부터 나오는 전기의 힘(力)이 전등불(電灯)의 광명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전체와 개체는 ‘건전지’와 ‘전등불’의 관계와 같다.[73] 그러므로 인간 개체는 전체인 한울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고, 사회(전체)로부터 생겨나기에 전체는 개체보다 선존적이다. 사회와 우주라는 선존이 있고, 개체는 그 선존적 전체로부터 화생한다.[74]

---

71) 이돈화, 『신인철학』, 앞의 책, 13-14면.

72) 과학적 진화론에서 생명은 일종의 조직적 작용의 화학적 변화의 조절로 나타나는 동적 상태에 불과하다. 예컨대 과학은 물질이 있으므로 조직이 있고, 조직이 있으므로 작용이 있으며 작용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다고 말한다(물질→조직→작용→생명). 반면 수운주의 진화론은 본체의 ‘생명’으로부터 조직으로, 조직에서 작용으로 나아가고 다시 본체로 환원되는(본체→생명→조직→작용→본체) 우주 대생명의 진화이다.

73)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천도교중앙종리원, 1926, 133-134면. 이돈화는 이를 나무와 나뭇잎에 비유하고 있다. 마치 나뭇잎들이 나무 전체의 생명력에 의지하여 생존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생명은 사회적 생명에 의한 발아요 사회적 생명은 대우주 생명의 발아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뭇잎이 광합성 작용을 하여 나무 전체에 영양분을 보내듯이 인간사회 역시 개인의 생명활동에 의해 보존된다.

74) 예컨대 인간이 나기 전에 지구는 이미 사람이 나서 살만한 조건이 구비된 것이고, 아메바가 생겼다고 하면 아메바라는 개체가 출생하기 전에 자연의 환경은 이미 아메바가 화생할 만한 모든 조건을 구비한 것과 같다. 한편 기존연구에서는 이돈화의 신인철학을 “전체론적 경향”으로 특징짓고 있는데(이병태, 「이돈화 『신인철학新人哲學』에 나타난 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 비판」, 『시대와 철학』 27-3, 2016, 218-219면), 그 이유는 이돈화가 한울을 존재론적 전체, 다른 그 무엇의 부분일 수 없는 실체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돈화가 말하는 한울이란 전체와 부분이 상즉하는 것을 말하고, 실체를 의미하는 전체론이 아니라 개별을 통해 자율적 창조를 이루는 ‘무궁성의 전일체(全一體)’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지기(至氣)실재론’과 ‘현상즉실재론’

이돈화는 ‘지기(至氣)’를 ‘지기 실재’로 지칭하였다. 우주의 본체는 지기생명력이고, 만물은 실로 지기생명의 연속적 진화의 결과이기에 이를 ‘지기실재’라 명명했던 것이다.[75] 이는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지 않는 물심일치(物心一致), 영육합치(靈肉合致)의 지기일원론이다.[76] 이돈화는 이를 다시 ‘현상즉실재’(現象卽實在)와 ‘원융적(영원적) 실재’로 나누었는데[77] ‘현상즉실재’란 바다와 파도의 관계처럼[78] 만유현상이 근본적 실재의 표현이기에 현상 역시 실재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원융적(영원적) 실재란 우주의 무시무종의 실재로서 본체적 실재를 가리켜 지칭한 것이었다.[79] 원래 ‘현상즉실재’와 ‘원융적・영원적실재’의 구분은 이노우에로부터 영향받은 것이지만[80] 그 차이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노우에가 말하는 실재론은 서양 철학사에서 유물과 유심 양극단의 대립을 하나의 철학적 체계로 완결지으려는 근대철학의 한 흐름으로 생겨난 것이었다. 이노우에는 이를 제3의 근본원리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여러 실재론 가운데서도 정신과 물질을 하나의 실재로서 융합・조화시킨 것을 ‘현상즉실재론’이라 설명했다. 이는 곧 현상학적 실재론이라 할 수 있는데, ‘현상즉실재’라는 말은 인식론적 방면에서 지칭한 말이고, 본체론적으로 말하면 ‘원융실재론’이 된다.[81] ‘현상즉실재론’이나 ‘원융실재론’ 양자 모두는 현상 자체를 실재로 보는 개념으로서 정신과 물질을 하나의 원리로 융합시킨 것을 의미

75) 이돈화, 『신인철학』, 앞의 책, 36-38면.
76)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앞의 책, 41면.
77) 이돈화, 『인내천요의』, 앞의 책, 97면.
78) 파도가 바닷물로 인하여 일어남과 같이 정신과 물질은 유일의 실재로부터 드러나는 해상(海上)의 파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돈화의 관점이다(이돈화, 『인내천요의』, 앞의 책, 96면).
79) 같은 책, 98면. 이돈화는 “한울님은 실재로서 우주에 편재한 실재체”요 “시간의 무한실재와 함께 실재적 실재가 되는 것”이라 말하였다.
80) 허수는 이돈화의 지기실재론이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가 말한 ‘현상즉실재론’ 철학에서 영향받은 것임을 분석한 바 있다(허수, 「1920년대 전반 이돈화의 개조사상 수용과 ‘사람성주의’」, 『동방학지』,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153-155면; 허수, 앞의 책, 63-70면).
81) 井上哲次郎, 『哲學と宗教』, 東京: 弘道館, 1915, 66-69면.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본체론적 접근이라고 해서 이것이 현상 외에 본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대로를 본체로 본다는 점이다. 즉 이노우에가 말하는 서구 실재론은 "정신과 물질의 두 현상을 제3의 원리에 의하여 통일하고자 하는 철학"[82]이었다. 이는 유물론과 유심론 이외의 제3 철학으로 보는 것이고, 제3으로 보는 것은 물질과 정신을 독립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며, 이는 이원화하여 보는 기성관념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결국 정신과 물질의 진정한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관념론에 머무르게 된다.

반면 이돈화는 유물, 유심, 실재론이 세 가지 원리가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원리'임을 말했다. '한 가지 원리'란 서구 실재론처럼 정신과 물질을 각각 독립된 원리로 보아 이 양자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적 실재가 정신으로도 물질로도 드러나는 하나의 원리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돈화가 주장하는 실재론은 정신과 물질현상 자체가 실재가 아니라 유일의 본체적 실재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말한다. 현상이란 "실재로부터 나타난 것"이고, "물질현상과 정신현상 두 가지를 일관하는 근본원리를 실재"[83]라 말한 것이기에 본체와 현상 모두 실재가 된다. 그는 이를 "지기일원론"이라 명명했다.[84] 이는 정신현상과 물질현상, 양자 모두를 실재로 볼 뿐만 아니라 본체적 실재로부터 '현상즉실재론'을 말하는 통합적 일원론이라는 점에서 서구실재론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이돈화는 정신과 물질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근원이 실재이고, 유일의 본체적 실재가 두 가지 현상으로 드러나는 현상 자체를 현상적 실재, 그리고 그 근원적 실재를 '원융·영원의 실재'라 지칭했다. 이는 정신이나 물질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본체와 현상 양자를 모두 똑같이 실재로 취급하면서도 그 실재의 실재인 본체에 주목한 것이다. 그래서 이돈화는 "실재론의 실재론된 소이"를 말했고, 본체가 빠져 있는 서구 근대 실재론과는 입장을 달리하였다.

> 진리는 물심 양자의 한편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양편을 관통한 일이관지의 본체에 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이 실재론의 실재론된 소이다.[85]

82) 이돈화, 『신인철학』, 앞의 책, 31면.
83) 같은 책, 32면.
84) 같은 책, 33면.

또한 지기의 본체적 실재는 그 자성상(自性上)에 조화를 포함하였으므로 정적(靜的)인 것이 아니라 "동적(動的)"인 것이다. 한울은 자존이자 무궁한 본체이면서 "작은 겨자씨에도 생명이 머물러 있고, 원형질 세포에도 생명이 있으며, 물질의 원자, 전자에도 거력(拒力), 흡력(吸力)이 있듯이 우주에는 '일대생명적 활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86]는 것이다. 이돈화는 이 동적인 일대생명적 활력을 '지기의 힘', 혹은 '한울'이라고 불렀다.

또한 지기실재론은 "인간사회를 주체로 삼는 일원론"[87]이다. 인간사회를 하나의 큰 나무로 보고 개인을 잎으로 보면 잎은 나무 전체의 생명력에 의해 지지됨과 같이 나무 전체는 뿌리뿐만 아니라 잎의 동화작용에 의해서 자체의 영생을 도모한다. 따라서 "인간 개체의 창조적 생명력은 사회적 생명의 내적 존재로 커져 나아갈 것은 명약관화한 것"[88]이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운명은 사회의 향배에 따라 정해지므로 개인의 사람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가 먼저 개조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가지와 잎이 나무 본체의 향배에 따라감과 같이 사회는 나무의 본성이며 개인은 그의 지엽(枝葉)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기의 達運을 얻기 위함에는 사회라 하는 대아의 운명을 개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의 운명을 개조하고자 하면 그 사회 그 시대에 적응한 창조력을 지어야 하나니 (…) [89]

5. 결론

이돈화는 한울 개념을 수운과 해월에 근거하여 재해석해나갔다. 수운이 말한 "무궁한 이 울"과 "무궁한 나"에 근거하여 '한울' 개념을 '양적 한울'과 '질적 한울'로 구체화시켜 나갔고, 양적 차원의 한울과 질적 차원의 한울은 '사람성 무궁'과 '사람성 자연'으로 전개되었다. 양적 의미의 한울이란 무궁한 시공간의

85) 이돈화, 『신인철학』, 앞의 책, 33면.
86) 앞의 책, 14-15면.
87)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앞의 책, 138면.
88) 같은 책, 136면.
89) 같은 책, 108면.

총합인 ‘우주전체’로서의 객관적 한울을 말하고, 질적 한울이란 “무궁한 나(無窮我)”, “큰 나(大我)”, “사회적・우주적 우리”를 뜻하는 주관적 한울을 말한다. 또한 사람성이란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천지만물의 총체를 포괄함’(사람성 무궁)과 동시에 ‘보편성의 내적 연속’(사람성 자연)으로서 “무궁자인 한울님이 사람성으로 발현”한 것을 뜻한다. 이돈화는 사람이 한울님의 무궁성을 자각하여 그 ‘한울님의 덕(天德)’과 합하고, 세상을 무위이화로 창조(진화)해 나아가는 맥락에서 ‘사람성 무궁’과 ‘사람성 자연’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특히 그가 제시한 사람성 자연의 네 가지 법칙은 인간의 본능을 한울의 영능(靈能)으로 규정하면서 그 영능을 세상에 발현하는 실천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성 자연은 한울 영능의 요구에 자연 에너지가 결합하여 사람성 능률이 생기고, 여기에 사회적 차원의 사람성 능률의 총합인 사회적 기능이 더해져 세상을 개조해 나감을 말한다. 또한 이 사람성 자연은 각 시대적 특징에서 합리성(사회적 기능의 균형)을 띠지만, 어떤 시대에 이르면 합리적 자연은 불합리로 변하기에 한 시대의 사람성 자연의 표준은 변증법적 고찰과 비판의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강조된다. 또한 그는 해월 최시형이 말한 “대우주, 대생명, 대정신”에 근거하여 한울님을 만물의 근원, 만물의 영능(靈能), 만물의 생명으로서 ‘만물의 중심에서 만물을 진화시키는 생명력(생활력)’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므로 한울은 주객일치이자 무궁한 실재로 인식되었다.

한편 이돈화는 한울님의 체험과 아울러 동학의 신관(神觀) 정립을 시도하였는데, 수운의 한울님 체험을 천사문답의 정신현상이라 말하고 이를 ‘상제천→범재천→인내천’의 단계적 변화로 인식하였다. 그는 한울님이 인격신적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인격적인 자연 생명력도 아님을 말하면서 신과 인간, 만물의 대립을 철폐하는 ‘일체양능(一體兩能)’을 주장했고, ‘범신론적 일신론’의 ‘인내천神’을 말했다. 인내천神은 유일신을 인정하지만 인격신을 말함이 아니요, 범신론처럼 천지만물을 모두 신의 표현으로 생각하지만, 신을 자각하는 것은 인간이기에 인간을 최령자로 본다. 특히 인내천神이 범신관과 다른 것은 한울(神)을 단순히 내용적인 만유의 평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유 그 자체의 성장’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돈화는 지기실재론을 제기하여 ‘현상즉실재’(現象卽實在)와 ‘원융적(영원적)

실재'로 나누었다. '현상즉실재'란 마치 바다와 파도의 관계처럼 만유현상이 근본적 실재의 표현으로서 현상 역시 실재라는 의미이고, 원융적(영원적) 실재란 우주의 무시무종의 실재로서 본체적 실재를 가리켜 지칭한 것이다. 지기실재론은 유일의 본체적 실재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실재론이라는 말 자체는 서구 근대 실재론에 영향받은 것이지만 서구의 그것이 유물, 유심, 실재론의 세 가지 원리 속에서 제기된 것이라면, 이돈화는 오로지 '한 가지 원리'에서 전개되는 실재론을 말했다. 즉 '한 가지 원리'란 서구 실재론처럼 정신과 물질을 각각 독립된 원리로 보아 이 양자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적 실재가 정신으로도 물질로도 드러나는 하나의 원리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돈화는 이를 "지기일원론"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정신과 물질현상 모두를 실재로 볼 뿐만 아니라 본체적 실재로부터 '현상즉실재론'을 말하는 통합적 일원론이라는 점에서 서구실재론과 차이가 있다.

한울님은 무위이화의 지기생명력이다. 이는 자존적 향상성, 즉 진화를 내포한다. 여기서 진화는 과학적 진화론처럼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물질적 인과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기생명력이 천지만유로 드러나는 무위이화의 전개'를 말한다. 인내천의 철학에서 말하는 진화는 한울님의 생명이 진화 중에 표현되는 '생명적인 무위이화'이다. '진화 속에서 완전'을, '현상 속에서 본질을 동시적으로 내포하는 진화'이고, '본체인 한울님의 전성(轉成)'이며, '진화 속에서 본체가 나타나는 것'임을 말한다. 특히 지기 생명력은 일체의 의식현상과 생명현상의 근저가 되고, "불생불멸의 활정체(活精體)"로서 정적(靜的)인 것이 아니라 "동적(動的)"인 것이다. 이돈화가 한울(지기)의 본체를 동적인 것으로 규명한 것은 기존의 유불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동학의 인내천철학을 체계화함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물론 이는 동학의 스승들이 이미 제시했던 것이기도 하다. 수운은 '한울님의 기화(氣化)'를 말했고, 해월은 쉬지 않고 약동하는 "약동불식(躍動不息)"을, 의암은 "비고고요하면서도 활발한 생명력(空寂活潑)"으로 한울님을 표현한 바 있다.] 요컨대 이돈화의 동학사상은 서구철학으로 경도된 것이 아니라 서구철학의 용어들을 활용하여 동학사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갔다고 볼 수 있고, 서구 사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 "한울철학"의 심화이며, 동학의 불교적 측면을 살려 나간 "지기실재론의 체계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개벽』
『동경대전』
『용담유사』
『천도교경전』
『천도교회월보』
『해월신사법설』

김경탁, 「하느님 관념 발달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문화사대계』 6(종교・철학사), 1971.
김용휘, 「천도교 문화운동론과 서양철학 수용」, 『범한철학』 77-2, 범한철학회, 2015, 53-88면.
남연호, 「동학의 천주를 하늘님으로 표기하자는 주장」, 『동학학보』 59, 동학학회, 2021, 263-297면.
김용옥, 『동경대전』 2, 통나무, 2021.
_____, 『용담유사』, 통나무, 2022.
박소정, 「동학, 한국어로 시도된 최초의 철학(5)」, 『개벽신문』55, 2016.6.
백세명, 『동학경전해의』, 한국사상연구회, 1963.
스티븐 내들러, 이혁주 역, 『에티카를 읽는다』, 그린비, 2013.
이돈화, 『인내천요의』, 천도교중앙종리원, 1924.
_____, 『수운심법강의』, 천도교중앙종리원, 1926.
_____, 『신인철학』, 천도교중앙종리원, 1931.
_____, 『새말』, 천도교중앙종리원, 1934.
이돈화 편, 『천도교리독본』, 천도교중앙종리원, 1926.
이병태, 「이돈화 『신인철학新人哲學』에 나타난 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 비판」, 『시대와 철학』 27-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6, 199-239면.
이철호, 「우주종교로서의 개벽사상」, 『한국학연구』 3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485-327면.
정혜정, 「이돈화의 동학사상과 시민사회」, 『횡단인문학』 10, 숙명인문학연구소, 2022, 301-327면.
_____, 「김형준의 ‘동학사회주의’와 ‘네오휴머니즘’」, 『민족문화연구』 9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519-546면.
조성환・이우진, 「ᄒᆞᄂᆞᆯ님에서 한울님으로: 동학・천도교에서의 천명(天名)의 변화」, 『대동철학』 100, 대동철학회, 2022, 85-106면.
허 수, 「1920년대 전반 이돈화의 개조사상 수용과 ‘사람성주의’」, 『동방학지』,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121-168면.
_____, 『이돈화 연구』, 역사비평사, 2011.
井上哲次郎, 『哲學と宗教』, 東京: 弘道館, 1915.

【Abstract】

A Study on Lee Don-Hwa's Donghak Thought : Focusing on 'Innaecheon(人乃天)' and 'Theory of Jigi(至氣)'

Jung, Hye-Jung*

This study examines the Donghak thought of Lee Don-hwa, who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Donghak theorist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focusing on 'Innaecheon (人乃天)' and 'theory of Jiki (至氣)'. When Donghak said, 'Human is Hanul (Innaecheon, 人乃天)', Lee Don-hwa divided Hanul into 'quantitative Hanul of the great universe' and 'qualitative Hanul as autonomous creation of Muwiihwa (無爲而化)'. Muwiyihwa means Jigi(至氣, extreme energy)'s autonomous creation. Lee Don-hwa understood Su-woon's experience with Hanul-nim as a mental phenomenon of 'mutual dialogue (天師問答)'. This was presented as the 'God of Innaecheon(人乃天)', that is, 'pantheistic monotheism' that went through a process of gradual change. Here, the gradual change means the stage of hearing the heavenly language from the air→the stage of hearing from the inside→the stage where each word becomes the inner voice and becomes the heavenly language. In addition, Lee Don-hwa also described Inaecheon as 'humanity infinity' and 'humanity nature'. The 'humanity infinity' means to encompass the totality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that appear as differential images. The 'humanity nature' as Hanul's spiritual power, means the subject of Gaebyeok (開闢) who achieves Hanul's autonomous creation. This was part of Inecheon's philosophical systematization, which led to the 'Evolutionary theory of Muwiihwa (無爲而化)' and 'Theory of Jigi realism'.

Keywords: Lee Don-Hwa, Donghak Thought, Hanul, Innaecheon (人乃天), Theory of Jigi (至氣), Muwiihwa (無爲而化).

접수일: 2023.03.31.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20.

* Academic Research Professor, Conflict Healing Inst., Dongguk Univ. (Gyeongju).